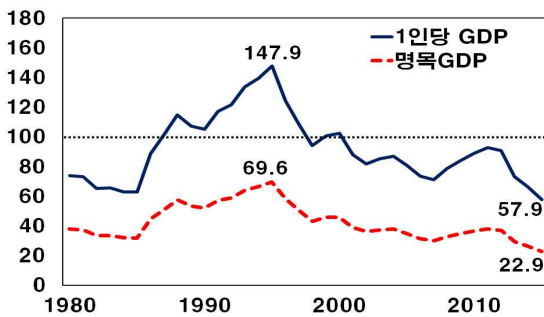


## 일본경제(2):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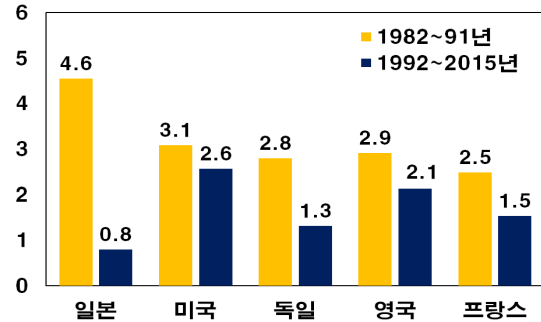
- ◆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속 성장을 통해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장기침체를 겪으면서 최근 위상이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제기
  -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1인당 GDP 수준이 미국을 상회하기도 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

미국대비 일본의 GDP규모<sup>1)</sup>(%)



주: 1) 명목 달러(시장환율) 기준  
자료: IMF

주요국 경제성장률<sup>1)</sup>(%)



주: 1) 기간중 연평균  
자료: IMF

- ◆ **【위상】** 일본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외형·규모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축소되었으나, 과학기술, 문화 등 **소프트 파워(Soft Power)**는 높은 수준
  - 기업의 해외진출,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

외형·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경제규모)</b> GDP 비중: 1994년 17.5%(2위) → 2015년 5.6%(3위)</li> <li>▶ <b>(소득)</b> 1인당 GDP(미국대비): 1995년 147.9%(3위) → 2015년 57.9%(24위)</li> <li>▶ <b>(교역)</b> 글로벌 교역비중: 1993년 7.9%(3위) → 2015년 3.8%(4위)</li> <li>▶ <b>(금융시장)</b> 주식시가총액 비중: 1988년 39.9%(1위) → 2015년 7.9%(3위)</li> </ul>
소프트 파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종합지수)</b> Monocle 서베이 3위(2016년), Future Brand 1위(2015년) 등</li> <li>▶ <b>(과학기술)</b> R&amp;D투자 규모 2위(2015년), 과학인프라 경쟁력 2위(IMD, 2016년)</li> <li>▶ <b>(문화)</b> 콘텐츠 시장규모(2015년): 지식정보 2위, 캐릭터 2위 등</li> <li>▶ <b>(사회시스템)</b> 학력(고졸이상 비중) 1위, 기대수명 1위, 치안수준 3위 등</li> </ul>
글로벌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해외생산)</b> 제조업 해외생산비중: 1990년 14.1% → 2015년 35.1%</li> <li>▶ <b>(경제협력)</b> 100억달러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적극 시행</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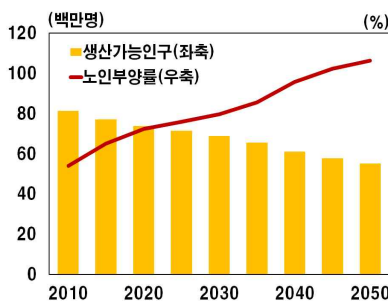
※ 일본경제를 최근의 주요 특징, 글로벌 위상, 아베노믹스 등을 중심으로 3회에 걸쳐 연재

◆ **[3대 리스크]** 향후 일본의 글로벌 위상에는 ① 인구고령화 ② 중국의 부상 ③ 일본내 자국 중심주의 강화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① (고령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일본경제의 중장기 성장이 제약되고 재정부담이 가속화되면서 정책 여력 축소
- ② (중국의 부상) 중국의 경제·정치적 위상이 강화되면서 일본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축소
- ③ (자국 중심주의) 일본의 자국 중심주의 정책 강화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 신뢰를 저하시키고 정치·외교적 위상과 소프트 파워에도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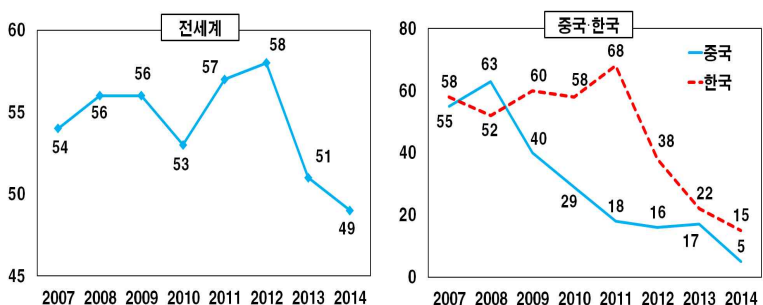
\* 일본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답변 비중이 2012년 58%(1위)에서 2014년 49%(5위)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하락폭이 컸음(BBC)

일본 생산가능인구 및 노인부양률<sup>1)</sup>



주: 1) 15~64세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중  
자료: UN

일본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평가<sup>1)2)</sup>(%)



주: 1) 매년 전세계 21~34개국 국민의 설문조사 결과  
2) 일본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  
자료: BBC, 동아시아연구원

◆ **[시사점]** 일본이 향후에도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유지·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추진, 대외 협력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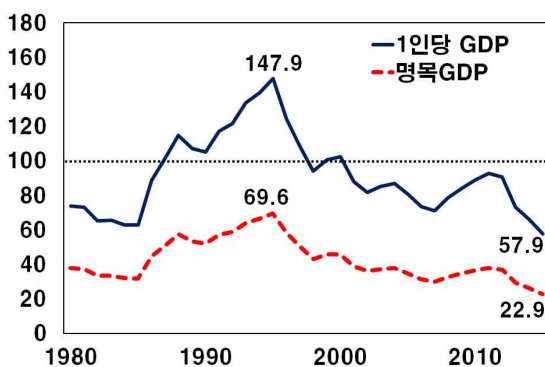
- 현재 진행중인 구조개혁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할 필요
- 한편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인구고령화와 수출시장 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문화 등 소프트 파워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
  - 일본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브랜드 가치, 문화, 서비스 등 소프트 파워 기반을 확충할 필요
  - 또한 ODA 사업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활용 방안을 모색

I

검토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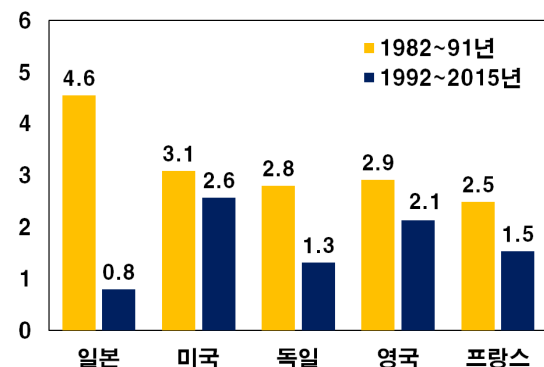
- 일본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80년대까지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국과 함께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
  - 일본의 명목 GDP는 1972년 독일의 GDP 규모를 넘어서면서 세계 2위로 올라선 뒤 1990년대 초까지 미국과의 격차를 꾸준히 축소
  -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1인당 GDP 수준이 미국을 상회하면서 일부에서는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도 예측\*
    - \* 일본은 1991년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1위를 기록
- 그러나 1990년대초 자산버블 붕괴로 촉발된 경기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중국 등 신흥국이 빠르게 부상하면서 일본의 위상이 하락했다는 평가가 제기
  -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이전 10년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4.6%→0.8%)
    - \*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91년 3.3%에서 1992년 0.8%로 하락.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일본의 장기불황 전개과정 참조
    - 이는 미국(2.6%), 독일(1.3%), 영국(2.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또한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및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강화로 일본에서 자국의 글로벌 위상하락에 대한 위기감이 심화

미국대비 일본의 GDP규모<sup>1)</sup>(%)



주: 1) 명목 달러(시장환율) 기준  
자료: IMF

주요국 경제성장률<sup>1)</sup>(%)



주: 1) 기간중 연평균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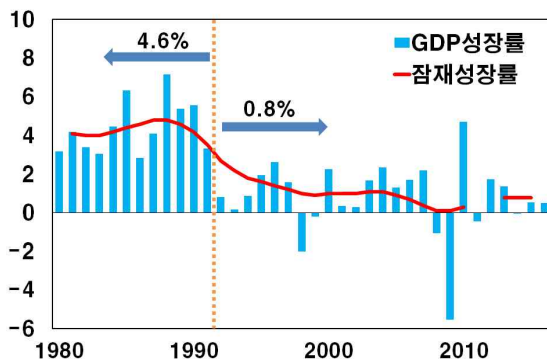
➡ 글로벌 경제의 관점에서 일본 위상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모색

<참고 1>

### 일본의 장기불황 전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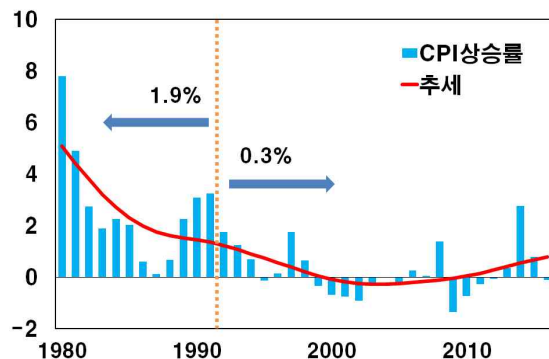
- 일본경제는 1990년대 초반 버블붕괴를 시작으로 5차례의 경기변동을 겪는 과정에서 저성장·저물가 경제로 변화
  - (1990~96년 자산버블 붕괴) 1980년대말 급등세를 보였던 주가 및 부동산가격이 90년을 전후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일본경기도 1991~93년중 급속히 위축
  - (1996~2000년 아시아 외환위기) 90년대 중반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경제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등의 여파 등으로 99년 초까지 부진 지속
  - (2000~07년 IT버블 붕괴) 2000년을 전후한 세계적인 IT투자확대(닷컴버블)로 일시 회복되다가 2000년 하반기 이후 후퇴기를 맞으며 더블딥 상황에 직면
  - (2008~11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일본경제가 2008~09년중 큰 폭으로 위축되고 물가도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
  - (2011~14년 동일본 대지진) 2010년 반등했던 일본경제는 2011.3월의 동일본 대지진, 2012년 유럽 재정위기 확산 등으로 성장이 다시 주춤
- 이에 따라 일본의 GDP성장률은 1982~91년중 연평균 4.6%를 기록한 뒤 1992~2015년중에는 0.8%에 그쳤으며 5%에 가까웠던 잠재성장률도 1%대 미만으로 하락
  - 소비자물가의 경우 1982~91년중 연평균 1.9% 상승한 뒤 1992~2015년중 0.3% 상승하는 데 그침

일본의 경제성장률<sup>1)</sup>



주: 1) 2011~12년 잠재성장률은 미공표  
자료: IMF, 일본 내각부

일본의 소비자물가상승률<sup>1)</sup>



주: 1) 추세는 HP필터를 이용하여 산출  
자료: 총무성

II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

1. 경제의 외형·규모는 상대적으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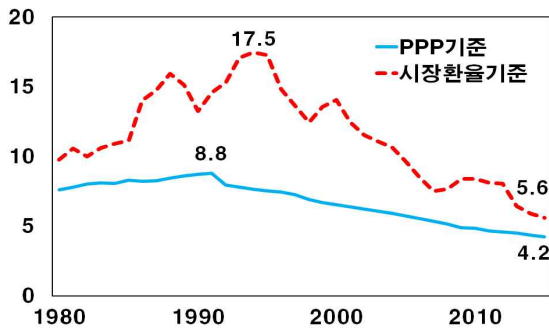
□ 현재 일본경제는 장기 경기침체시기 이전인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해서 경제규모 및 소득, 교역, 금융시장 등 경제의 외형·규모는 상대적으로 축소

○ (경제규모) 전세계 명목GDP(시장환율 기준) 중 일본의 비중은 1994년 17.5%에서 2015년 5.6%로 약 1/3 수준으로 축소

- 일본의 GDP 규모는 1994년 미국(26.3%)과 더불어 여타 국가와 큰 격차를 둔 2위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에는 중국(15.2%)에 크게 뒤진 3위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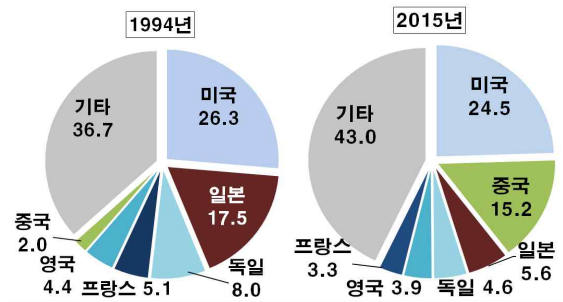
\* PPP 기준으로는 중국(17.3%), 미국(15.8%), 인도(7.0%)에 이은 4위(4.2%)를 기록

일본의 글로벌 GDP비중(%)



자료: IMF

주요국 경제규모(%)<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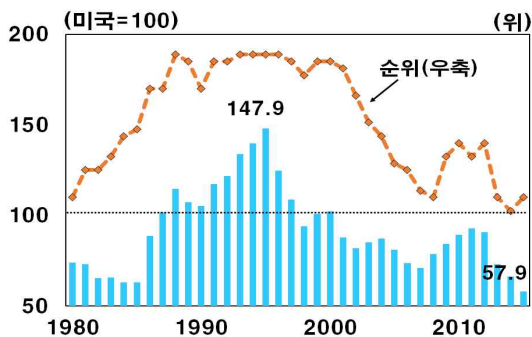


주: 1) 명목 달러(시장환율) 기준  
자료: IMF

○ (1인당 소득) 1인당 GDP는 1995년 미국의 147.9%(3위) 수준에서 2015년 57.9%(24위)\*로, 1인당 실질임금은 1991년 81.8% 수준에서 2015년 60.9%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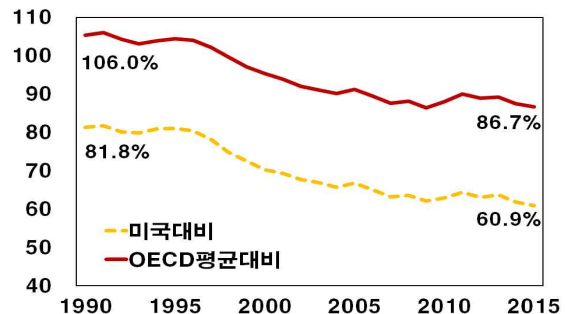
\* 시장환율 기준이며 PPP기준으로는 1991년 미국의 83.4%에서 2015년 68.0%로 감소

일본의 1인당 GDP 수준<sup>1)</sup>



주: 1) 명목 달러(시장환율) 기준  
자료: IMF

일본의 1인당 실질임금 수준<sup>1)</sup>(%)



주: 1) 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  
자료: OECD

○ (교역) 일본은 독일, 미국 등과 함께 3대 교역국이었으나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중국, 한국 등 후발국의 부상으로 교역비중이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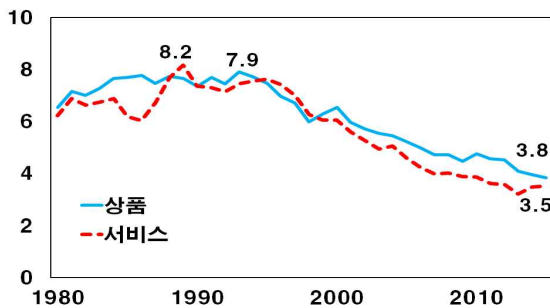
- 글로벌 교역 비중은 상품 및 서비스 각각 최고 7.9%(1993년, 3위), 8.2%(1989년, 2위)까지 확대되었다가 2015년 각각 3.8%(4위), 3.5%(6위)로 축소

- 특히 1995년 세계수출점유율 1~2위를 기록했던 전기기기, 사무용기기, 통신·녹음기기 등이 중국산 제품에 밀리면서 점유율이 10%p 이상 하락

- 또한 글로벌 수출시장에서의 위상하락에 따라 무역기업들의 경쟁력도 하락\*

\* 1995년 글로벌 10대 기업(포춘)에 6개의 일본 무역업체(종합상사)가 포함되었으나 2015년에는 모두 100위권 밖에 위치

일본의 글로벌 교역<sup>1)2)</sup> 비중(%)



주: 1) 수출+수입  
2) 서비스의 경우 2004년까지는 BPM5, 2005년이후는 BPM6 기준

자료: UNCTAD

일본의 주요 수출품<sup>1)</sup>의 수출점유율(%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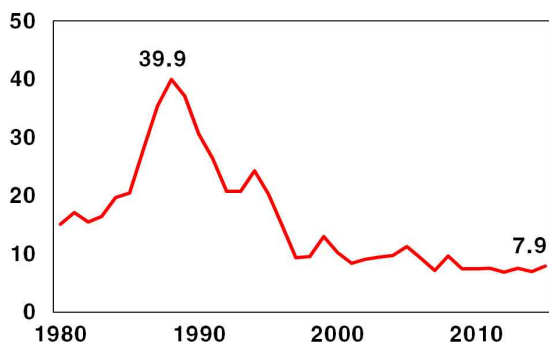
	1995년		2015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자동차	17.8	1	10.1	2(독일)
전기기기	17.3	1	5.3	8(중국)
사무용기기	15.0	2(미국)	2.5	9(중국)
일반산업기계	14.5	2(독일)	5.6	5(중국)
통신녹음기기	14.9	1	1.8	10(중국)
특수산업기계	14.5	3(독일)	10.0	3(독일)

주: 1) 1995년 수출액 상위 6개 품목(SITC 2자리 기준)  
2) ( )는 수출점유율 1위 국가  
자료: UNCTAD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금융시장) 주식 및 신용시장 등의 규모가 1980년대 말 전세계에서 가장 컸으나 버블 붕괴, 실물경제 부진 등으로 글로벌 위상이 크게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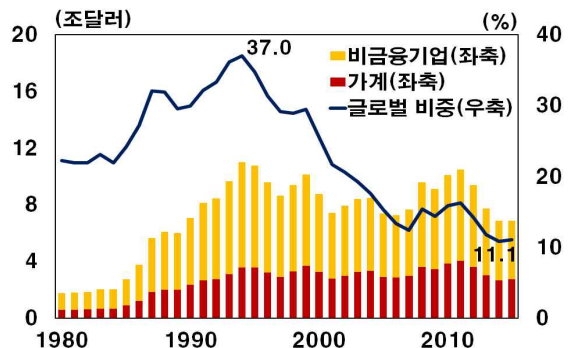
- 주식시장 시가총액(1988년 39.9% → 2015년 7.9%) 및 민간신용(주요 15개국중 비중, 1994년 37.0% → 2015년 11.1%)의 글로벌 비중이 약 1/3 수준으로 축소

일본의 주식시가총액<sup>1)</sup> 비중(%)



주: 1) 전세계중 비중  
자료: World Bank

일본의 민간신용 및 글로벌<sup>1)</sup> 비중(%)



주: 1) 시계열 확보가능한 주요 15개국 합산  
자료: BIS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2.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경쟁력은 유지·강화

□ 일본은 과학기술, 문화, 사회시스템 등 유·무형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꾸준히 발전시키면서 경제의 질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강화

\* 문화적 영향력, 정치·외교적 가치, 교육수준, 기술력 등의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하드 파워(Hard Power)와 대비

○ 주요 글로벌 조사기관에서 평가한 일본의 소프트 파워 수준은 전세계 3위~7위 수준이며 과학기술, 문화, 기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일본의 주요 소프트 파워 지수<sup>1)</sup> 순위

조사명	순위	비고
Monocle Soft Power Survey(2016)	3위 (2011년 7위)	
Portalnd Soft Power 30(2016)	7위 (2015년 8위)	기업 4위, 국제협력·외교 4위
Elcano Global Presence <sup>2)</sup> (2016)	6위 (2010년 5위)	기술 2위, 과학 5위, 협력 4위
US News Best Countries(2017)	5위 (2016년 7위)	기업가정신 2위, 문화적 영향력 6위
Future Brand Country Index(2015)	1위 (2008년 9위)	기술, 인프라, 기업분야 고평가

주: 1) 문화, 기술, 국제협력, 기업, 교육 등의 분야에서 통계 및 설문 결과를 반영하며 세부 항목 및 평가방법은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음

2) Global Presence Ranking 중 Soft Presence 분야 순위

자료: 각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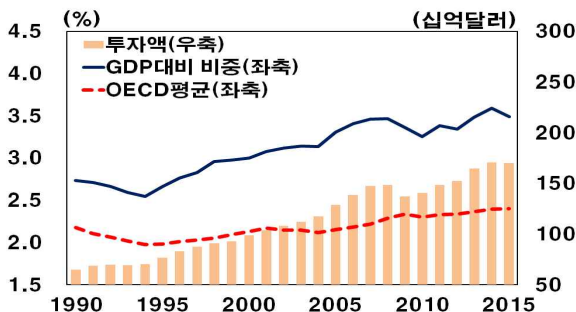
○ (과학기술) 일본은 장기침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확대해나가면서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

- 일본의 2015년 R&D 투자규모는 1,700억달러 수준(OECD 국가중 2위)이며 GDP대비 비중은 3.5%(3위)

- 과학인프라 분야의 국가경쟁력은 특허 보유 및 취득건수, R&D 인력 및 투자액, 과학관련 학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미국에 이은 2위를 기록\*(IMD, 2016년)

\* 세계경제포럼(WEF) 경쟁력 평가(2016년)에서는 인프라(5위), 보건 및 기초교육(5위) 비즈니스 성숙도(2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일본의 R&D 투자액 및 GDP대비 비중



자료: OECD

일본의 과학인프라 경쟁력

분야	순위
· 특허 보유건수(십만명당)	1위
· 특허 취득건수(2012~14년평균)	1위
· 기업의 R&D분야 인력	2위
· R&D 투자액	3위
· 과학관련 학위(총 학위중 비중)	2위
· 과학관련 논문수	3위
종합	2위

자료: IMD 세계경쟁력 보고서(2016년)

○ (문화) 지식정보, 캐릭터, 게임산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시장 규모가 전세계 2~3위권으로 문화산업에 있어 높은 경쟁력을 보유

-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문화산업 육성 정책을 실시 하였으며 2010년 이후 '쿨재팬(Cool Japan)' 정책\*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

\* 일본 애니메이션, 음악, 의식주 문화, 라이프 스타일 등 문화콘텐츠를 일본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개발·제작, 해외진출 등을 적극 지원

일본의 주요 콘텐츠시장 규모<sup>1)</sup>(십억달러)

분야	시장규모	세계순위	성장전망 <sup>2)</sup>
지식정보	66.4	2위	5.7
캐릭터	10.4	2위	4.4
게임	10.2	2위	4.8
음악	4.6	2위	2.1
방송	24.9	3위	3.3

일본의 주요 문화산업 육성 정책

연도	주요 정책
2001	'E-Japan' 전략 및 '문화예술진흥 기본법' 제정
2004	'신산업창조전략' 수립
2007	'Innovation25' 발표
2010	'쿨재팬(Cool Japan)' 정책 도입

주: 1) 2015년 기준

2) 2016~20년중 글로벌 시장규모 증가율 전망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사회시스템) 일본은 안정적인 경제·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교육수준을 보유

- 학력, 노동시장, 안전 등 주요 사회지표에서 OECD 회원국 중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

- 또한 중소기업 중 장수기업이 많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등 기업활동의 안정성도 높음\*

\* 10년이상 영업활동을 한 중소기업의 비중이 73.9%(2001~11년 평균)로 주요국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체 은행대출중 중소기업 대출의 비중도 높은 편

일본의 주요 사회 지표

분야	일본	OECD평균
고용불안정 수준 <sup>1)</sup>	2.4 (8위)	6.3
야간보행 안전도	70.2 (18위)	68.3
치안 수준 <sup>2)</sup>	0.3 (3위)	4.1
고졸이상 비율	94 (1위)	76
학업성취 <sup>3)</sup>	540 (2위)	497
기대수명	83.4 (1위)	7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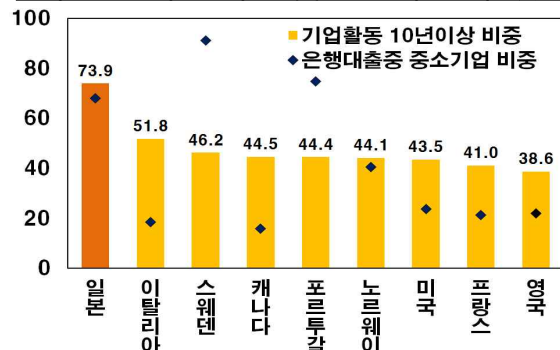
주: 1) 실업시 기대소득 감소분으로 측정

2) 10만명당 살인률 수준으로 측정

3)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점수

자료: OECD Better Life Index(2016)

장수 중소기업 비중 및 은행대출 비중<sup>1)</sup>(%)



주: 1) 근로자 50명이하 기업, 2001~11년평균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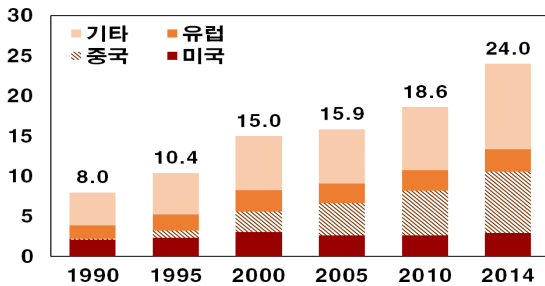
### 3. 해외진출 및 경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영향력 제고

□ 일본은 기업의 해외진출을 늘리고 공적개발원조(ODA) 등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제고

○ (해외진출) 일본 기업의 해외투자 및 생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글로벌 공급체인에서 일본의 위상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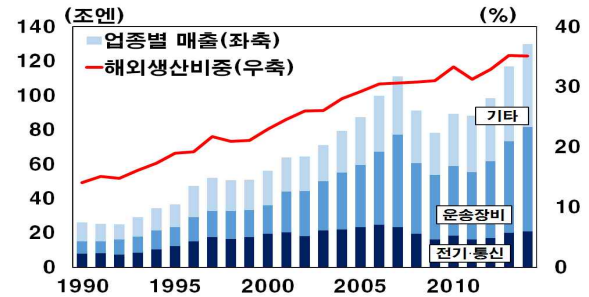
- 일본계 해외현지법인 수는 중국을 중심으로 1990년 8천개에서 2015년 2만 4천개로 크게 증가
- 제조업 해외생산비중은 1990년 14.1%에서 2015년 35.1%로 상승하였으며 해외현지법인의 매출도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확대(1990년 26조엔→2014년 130조엔)

주요국 일본계 기업의 현지법인 수(천개)



자료: 경제산업성

일본의 제조업 해외생산비중<sup>1)</sup> 및 업종별 매출



주: 1) 해외생산/(국내생산+해외생산)  
자료: 경제산업성, 일본국제협력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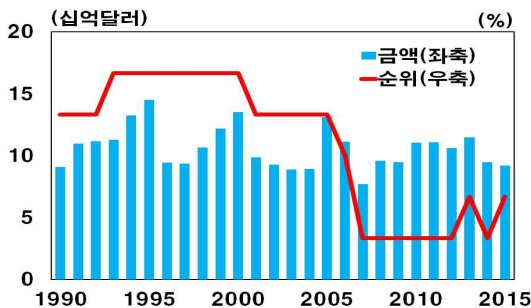
○ (경제협력)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ODA를 꾸준히 시행\*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경제·외교적 영향력을 증대

\* 2000년대 중반까지 세계 1~2위 규모의 ODA를 시행하였으며 이후에도 순위는 다소 하락했으나 100억달러 내외의 ODA 규모를 유지

- 최근에는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기업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전략적 ODA를 확대\*

\* 일본 철강업계가 ODA와 연계하여 동남아, 인도 등에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등 국익을 추구

일본의 ODA 금액 및 순위<sup>1)</sup>



주: 1) 지출 순액기준 자료: OECD

일본의 ODA 정책

1954~1976년	전후 경제복구 및 수출촉진
1977~1991년	인도적 지원을 통한 국제사회 공헌
1992~2002년	원조체계 확립(ODA 4대 지침 발표)
2003~2012년	장기적 국익을 위한 전략 수립
2012년~	개도국 인프라 개발사업 참여

자료: 포스코경영연구원

### III

## 향후 일본의 글로벌 위상에 대한 3대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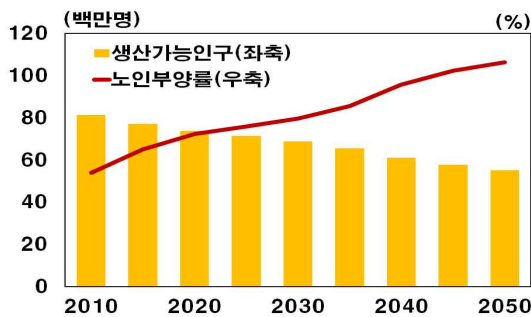
◇ 향후 일본의 글로벌 위상에는 ① 인구고령화 ② 중국의 부상 ③ 일본내 자국 중심주의 강화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리스크 ①】 인구고령화

□ 인구고령화에 따라 중장기성장이 제약되고 재정부담이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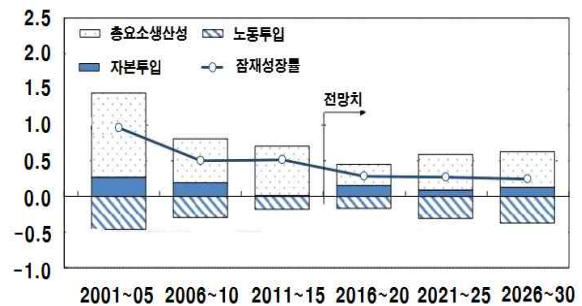
- 생산가능인구가 2050년까지 2015년의 70% 수준으로 빠르게 감소하면서 노동공급이 축소될 전망이며 노동력 고령화에 따라 생산성도 하락할 가능성

일본 생산가능인구 및 노인부양률<sup>1)</sup>



주: 1) 15~64세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중  
자료: UN

일본의 잠재성장률 전망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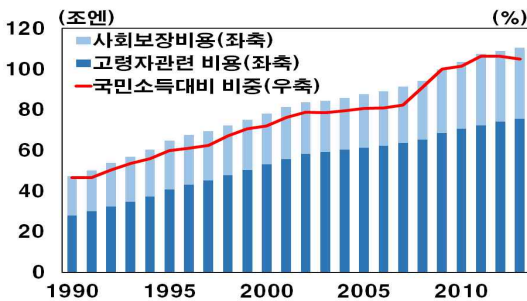
자료: 일본경제연구센터

- 재정건전성 악화는 일본경제에 대한 글로벌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

- 사회보장비용이 최근 20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향후에도 연금, 의료 등의 고령자 관련 비용을 중심으로 재정부담이 더욱 확대
- 국가부채 증가 등으로 정부재정이 악화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대외신인도가 낮아질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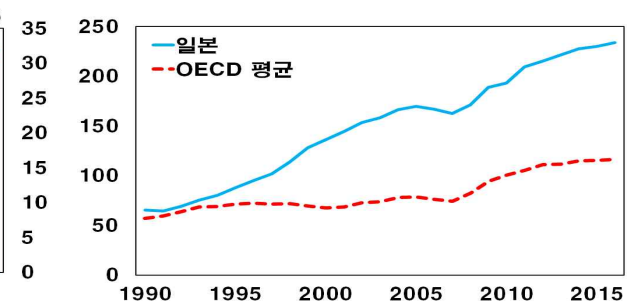
\* 정부재정 악화에 따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94년 AAA에서 현재 A로 4단계 하락(피치)

일본의 사회보장비용



자료: 내각부, 고령사회백서(2015)

GDP대비 정부부채<sup>1)</sup>(%)



주: 1) 일반정부 금융부채  
자료: OECD

## 【리스크 ②】 중국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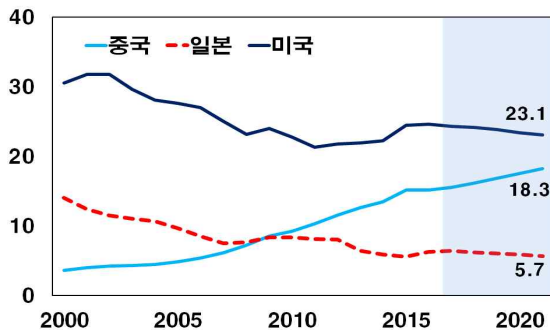
□ 중국의 경제·정치적 위상이 강화되면서 일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축소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실물경제의 비약적인 성장, 금융시장의 개방 및 활성화, 글로벌 질서 재편성을 이루면서 세계 경제의 핵심 축으로 부상

- 중국이 상당기간 동안 6% 내외의 빠른 성장을 지속하면서 일본과의 경제규모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IMF(2016.10월)는 2021년 중국의 GDP비중이 18.3%까지 확대되는 반면 일본은 5.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주요국 GDP 비중<sup>1)</sup>(%)



주: 1) 명목 달러(시장 환율) 기준  
자료: IMF

주식시가총액 국가별 비중(% , %p)

	2014년(A)	2030년 <sup>9)</sup> (B)	(B-A)
중국	6.4	18.9	12.5
미국	38.9	34.6	-4.3
일본	7.4	4.6	-2.8
영국	7.2	4.4	-2.7
기타	40.1	37.5	-2.6

자료: Credit Suisse

○ 또한 최근에는 중국이 높아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국 주도의 질서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아시아 대표 선진국으로서 일본의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

-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신개발은행(NDB) 등을 통해 금융질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무역질서 재편을 추진

- 최근에는 '일대일로' 구상(2013년) 등을 통해 주변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제사회 주요 아젠다 등에서 중국의 리더십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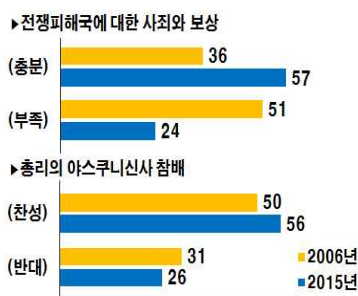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현황 및 추이

시기	내용
2013년	- 9월 육상 실크로드, 10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상 발표
2014년	- 12월 400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 기금 조성
2015년	- 6월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자본금 규모 1,000억달러, 57개 회원국)
2016년	- 1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란 등 중동국가와 일대일로 공동구축

## 【리스크 ③】 일본내 자국 중심주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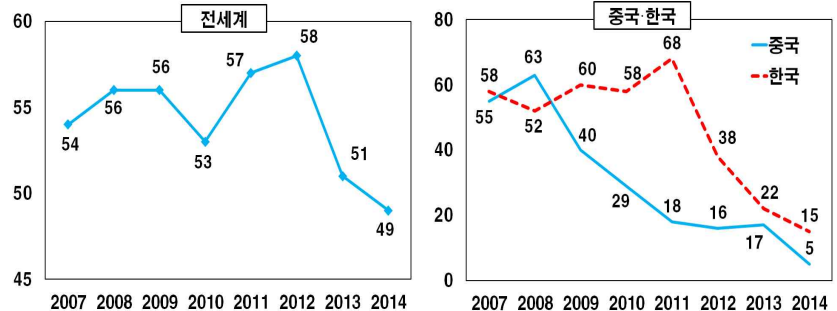
- 일본의 자국 중심주의 정책기조 강화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 신뢰를 저하시키고 정치·외교적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최근 일본정부가 국가적 자긍심과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확대하면서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긴장이 지속
    - 아베 내각에서 한·중과의 영토 분쟁,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한층 더 적극적으로 자국 중심적인 입장을 나타냄
    - 전쟁피해국에 대한 일본의 사죄·보상이 충분하며 야스쿠니신사 참배 찬성 의견이 높아지는 등 일본국민의 역사인식도 우경화(아사히신문, 2015.4월)
  - 이에 따라 일본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평가가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최근 수 년간 급격히 악화
    - 일본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답변 비중이 2012년 58%(1위)에서 2014년 49%(5위)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하락폭이 컸음(BBC)

일본국민 여론조사(%)



자료: 아사히신문 여론조사

일본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평가<sup>1)2)</sup>(%)



주: 1) 매년 전세계 21~34개국 국민의 설문조사 결과

2) 일본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

자료: BBC, 동아시아연구원

- 현 아베 내각이 일본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주변국간 관계개선보다는 자국 중심 정책을 강화할 경우 일본에 대한 신뢰가 더욱 저하될 가능성
    - 아베 내각 지지율이 꾸준히 50%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총리의 3연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강화될 전망
- \* 2017.3월 자민당은 당대회에서 연속 2차례 6년으로 제한되어 있던 총재 임기를 연속 3차례 9년으로 변경하여 아베 총리가 2021.9월까지 집권 가능

## IV

### 종합평가 및 시사점

- 일본경제는 외형·규모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으나 소프트 파워와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왔으며 향후에도 이를 중심으로 글로벌 위상을 유지할 전망
  - 장기 경기침체기 이전인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해서 경제규모 및 소득, 교역, 금융시장 등 경제의 외형과 규모는 상대적으로 축소
  - 과학기술, 문화, 사회시스템 등 유·무형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꾸준히 발전시키면서 경제의 질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강화
  - 기업의 해외진출을 늘리고 공적개발원조(ODA) 등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외 영향력을 제고

####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

외형·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규모) GDP 비중: 1994년 17.5%(2위) → 2015년 5.6%(3위)</li> <li>▶ (소득) 1인당 GDP(미국대비): 1995년 147.9%(3위) → 2015년 57.9%(24위)</li> <li>▶ (교역) 글로벌 교역비중: 1993년 7.9%(3위) → 2015년 3.8%(4위)</li> <li>▶ (금융시장) 주식시가총액 비중: 1988년 39.9%(1위) → 2015년 7.9%(3위)</li> </ul>
소프트 파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지수) Monocle 서베이 3위(2016년), Future Brand 1위(2015년) 등</li> <li>▶ (과학기술) R&amp;D투자 규모 2위(2015년), 과학인프라 경쟁력 2위(IMD, 2016년)</li> <li>▶ (문화) 콘텐츠 시장규모(2015년): 지식정보 2위, 캐릭터 2위 등</li> <li>▶ (사회시스템) 학력(고졸이상 비중) 1위, 기대수명 1위, 치안수준 3위 등</li> </ul>
글로벌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생산) 제조업 해외생산비중: 1990년 14.1% → 2015년 35.1%</li> <li>▶ (경제협력) 공적개발원조(ODA) 적극 시행</li> </ul>

- 한편 장기 디플레이션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실험을 통해 전세계 주요국의 경기적·구조적 문제에 대해 정책적 선례를 제공
  - 일본은 최근 주요국에서 나타나는 3저 현상(저성장·저물가·저금리), 인구 고령화 등을 먼저 경험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 \* <참고 2> 경기적·구조적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정책대응 참조
  - 일본은행은 제로금리(1995년), 양적완화(QE, 2001년), 양적·질적금융완화(QQE, 2013년) 정책 등의 다양한 정책적 실험을 실시
  - 일본 정부는 ‘고령사회대책대강’(1995년) 등 정책을 통해 고령자 고용여건 개선 등 고령사회에 맞는 경제·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

□ 다만 **고령화, 중국의 부상, 자국 중심주의 강화** 등이 향후 위상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구조개혁 추진, 대외 협력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

○ **(구조개혁 추진) 노동시장 및 산업분야의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할 필요**

-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생산성 향상 및 투자 촉진을 통해 장기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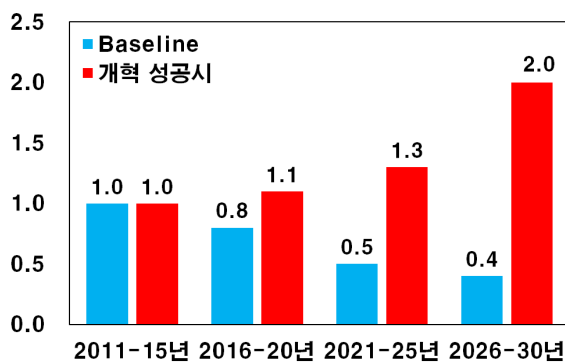
\* 일본경제연구센터에서는 구조개혁 성공시 2026~30년중 일본경제가 2%까지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앞선 기술력과 과학인프라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4차 산업사회로 이행\***

\* 일본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2016년) 등 최근 4차산업 관련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중

<참고 3> 일본의 4차산업 육성정책 참조

구조개혁 성공시 일본의 GDP성장률<sup>1)</sup>(%)



주: 1) 기간중 연평균, SNA 개편후 기준  
자료: 일본경제연구센터(2017.3월)

일본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의 경제적 효과(%)

	기존	대응전략 성공시
실질GDP성장률 <sup>1)</sup>	0.8%	2.0%
명목GDP성장률 <sup>1)</sup>	1.4%	3.5%
임금상승률 <sup>1)</sup>	2.2%	3.7%
고용증감 <sup>2)</sup>	-735만명	-161만명

주: 1) 2015~30년중 평균 2) 2015년대비 2030년  
자료: 일본경제산업성

○ **(대외협력 강화) 높은 글로벌 위상에 걸맞게 개방적·포용적 자세를 가지고 대외 현안 문제에 있어 주변국과의 협력에 보다 노력하는 것이 필요**

- 일본의 소프트 파워가 아시아 및 글로벌 번영과 평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

<참고 2>

### 경기적·구조적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정책대응

- 경기적·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에게 시사점을 제공
  - **(경제대책)** 일본은 장기침체 상황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대응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됨
    - 특히 일본은행은 주요 선진국에 앞서 제로금리 정책(1995년, 0.5%), 양적완화(QE, 2001년), 양적·질적금융완화(QQE, 2013년) 등 다양한 정책대응 수단을 개발·시행
    - 미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비전통적 수단 등 과감한 정책 대응을 시행

####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주요 재정·통화정책

시기	1990~96년	1996~00년	2000~07년	2007~11년	2011년~
충격 요인	주식 및 부동산 버블 붕괴	아시아 외환위기, 일본은행 도산	글로벌 IT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동북대지진, 유럽재정위기
재정 정책	66조엔 경제대책 (6회)	70조엔 경제대책 (4회)	10조엔 경제대책(3회), 금융구조조정	187조엔 경제·금융 대책(7회)	64조엔 규모의 경제대책(4회)
통화 정책	정책금리: 6% → 1.75%(5회), 95년중 0.5% 인하(2회)	정책금리: 0.5% → 0.15%(2회)	제로금리 및 양적완화(당좌예금 잔액 목표)	제로금리 및 자산 매입기금도입 등 포괄적 금융완화	국채매입 확대 등 양적·질적완화

자료: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 **(인구고령화 대책)** 일본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사회 기반 조성,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 일본 정부는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이른 1995년 종합적인 고령사회대책\*을 수립하고 고령층 고용, 복지, 생활환경 등과 관련한 정책을 시행
- \* 1995년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근거로 ① 취업·소득, ② 건강·복지, ③ 학습·사회참가, ④ 생활환경, ⑤ 조사연구를 5대 시책분야로 설정한 <고령사회대책대강>을 수립

#### 주요국 고령화 대책

국가	주요 대책	내용
일본	고령사회대책기본법(1995년)	고령층 고용정책 방향 설정, 연금제도 개선 등
영국	뉴딜 50플러스(2000년)	고령자 구직과 직업훈련, 고용보조금 지원
프랑스	고령자고용을 위한 국가협력계획(2006년)	고령자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고령자 일자리 유지 장려 및 재취업 촉진 등
독일	아젠다 2010(2003년)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2010년까지 직업교육, 노동시장, 연금 등 8개 분야의 개혁 추진
호주	고령화에 관한 국가전략(2002년)	고령화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세대보고서 발간

<참고 3>

### 일본의 4차산업 육성정책

- 일본은 장기 침체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IT기술 육성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 선언)** IT 인프라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IT활용 국가로 발돋움하고 이를 새로운 경제성장 엔진으로 활용(2013.6월)
  - **(로봇 신전략)** 로봇 강국 위상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노동력 감소 등 사회문제의 극복 방안으로 로봇활용 전략을 구상(2015.1월)
    - 제조업부터 간호·의료 서비스업, 인프라·재해 대응, 농림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강화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 2015)** 제품기획부터 유지보수까지의 전 과정을 IT기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제조시스템을 구축(2015.6월)
  -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국가경제 및 사회전반을 변화시키는 국가혁신 프로젝트 차원으로 확대(2016.4월)

####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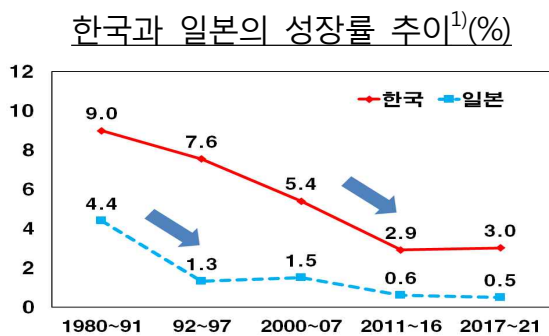
정 책	내 용				
■ 기술 분야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데이터 활용촉진 환경 조성)</td> <td style="padding: 5px;">·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유통시장의 활성화 · 개인데이터 활용 촉진 조성 · 보안기술과 관련 인재 육성의 생태계 구축</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혁신기술개발 가속화)</td> <td style="padding: 5px;">·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 구축 · 혁신거점 정비, 국가프로젝트 구축, 사회구현 가속화</td> </tr> </table>	(데이터 활용촉진 환경 조성)	·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유통시장의 활성화 · 개인데이터 활용 촉진 조성 · 보안기술과 관련 인재 육성의 생태계 구축	(혁신기술개발 가속화)	·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 구축 · 혁신거점 정비, 국가프로젝트 구축, 사회구현 가속화	
(데이터 활용촉진 환경 조성)	·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유통시장의 활성화 · 개인데이터 활용 촉진 조성 · 보안기술과 관련 인재 육성의 생태계 구축				
(혁신기술개발 가속화)	·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 구축 · 혁신거점 정비, 국가프로젝트 구축, 사회구현 가속화				
■ 인재육성 및 고용시스템 개선	· 새로운 니즈에 대응한 교육시스템 구축 및 글로벌 인재 확보 · 다양한 노동참가 촉진 및 노동시장고용제도의 유연성 향상				
■ 금융기능의 강화	· 리스크머니 공급을 위한 자금조달기능 강화 · 무형자산 투자의 활성화 및 핀테크 금융결제 고도화				
■ 산업 및 취업 구조 전환	·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 · 유연한 사업 재생·재편이 가능한 제도 및 환경 정비				
■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파급	· 중소기업 및 지역에서의 IoT 등 도입활용 기반 구축				
■ 경제사회시스템 고도화	· 규제개혁 재정비 · 4차 산업혁명의 사회 공감대 확산				

자료: 일본경제산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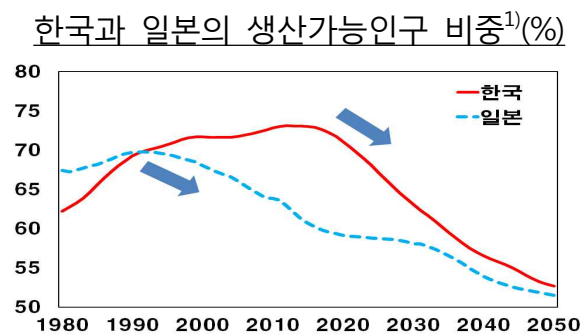


##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1990년대초 일본과 유사하게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9%(2011~16년)에 그치면서 위기 전(2000~07년 5.4%)에 비해 큰 폭 하락
  - 인구구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5년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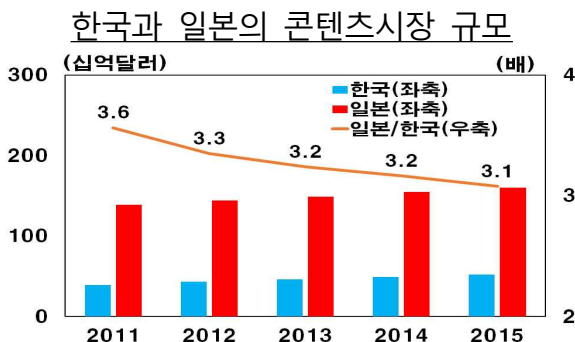


주: 1) 2017~21년은 IMF(2016.10월)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IMF



주: 1) 15~64세 인구비중  
자료: OECD

- 또한 수출시장에서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과학기술, 문화 등 소프트 파워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
  - 주요 수출산업에서 한국과 주요 경쟁국간 수출 경합도가 빠르게 상승\*
    - \* 중·일·미·독 4개국과의 수출경합도: 2011년 55.6 → 2015년 58.8(현대경제연구원, 2016.2월)
  - R&D투자액 및 특허 출원수\*가 일본의 절반 이하 수준이며 콘텐츠 시장 규모도 최근 한류 등으로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일본의 1/3 수준
    - \* 2015년 R&D투자액은 일본 1,700억달러, 한국 740억달러이며 2014년 특허출원수는 일본 4만 3천건, 한국 1만 3천건(OECD)
  - ODA규모도 일본의 20% 수준이며 GNI대비 비율도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국 ODA규모(2015년)<sup>1)</sup>

국가	금액 (십억달러)	GNI대비 비율(%)
미국	31.0	0.17
독일	17.9	0.52
일본	9.2	0.21
한국	1.9	0.14
DAC 평균 <sup>1)</sup>	4.7	0.3

주: 1)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8개국 평균  
자료: OECD

-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에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소프트 파워 기반을 확충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비할 필요
- 경제사회시스템의 성숙과 함께 브랜드 가치, 문화, 서비스 등 글로벌 수준에서 매력있는 소프트 파워를 제고할 필요
- ODA 사업 등을 통해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한 전략적 활용방안도 모색할 필요
-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정책대응 경험 등을 경제정책 수립시 적극 고려할 필요

## 《참고자료》

- 김규관 등,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대외정책연구원, 2015.10월
- 김양희 등, “주요국의 저출산·고령화 대비 성장전략 연구와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12월
- 김윤기 등,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6.4월
- 김정규, “일본의 recession기 정책당국의 주요 대응사례 및 시사점”,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2014.12월
- 김주경·유영철, “주요국 콘텐츠산업 진흥정책 비교 연구”, 한국행정학회, 2013.12월
- 김지은,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과 전망”, *국제경제리뷰*, 한국은행, 2017.2월
- 정한울, “한일상호인식에 대한 오해와 관계개선 솔루션 찾기”, 동아시아연구원, 2015.6월
- 백다미, “주요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국간 수출경합도 및 점유율 분석”, 현대경제연구원, 2016.2월
- 이윤희·김지선, “ODA 활용과 철강수출 확대, 일본 철강업계 사례와 시사점”, 포스코 경영연구원, 2016.12월
- 이재원, “제4차 산업혁명: 주요국의 대응현황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리뷰*, 한국은행, 2016.8월
- 정경희 등,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정책 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12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해외콘텐츠시장 동향조사”, 2017.1월
- 일본경제연구센터, “第43回 中期經濟予測”, 2017.3월
- 일본 국제협력은행, “わが国製造業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関する調査報告”, 2016.12월
- 일본 내각부, “平成28年版高齢社会白書”, 2016.5월
- 일본 산업구조심의회, “新産業構造ビジョン”, 2016.4월
- Credit Suisse, “Emerging capital markets: The road to 2030” 2014.7월
- Future Brand, “Country Brand Index 2014-15”, 2014.11월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6”, 2016.5월
- Liu, Westelius, “The Impact of Demographics on Productivity and Inflation in Japan” IMF, 2016.12월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6”, 2017.2월
- Portland, “The Soft Power 30 2016”, 2016.6월
- Real Instituto Elcano, “Global Presence Report 2016”, 2016.5월
- Takatoshi Ito, “Japanization: Is It Endemic or Epidemic?”, NBER, 2016.2월
- Yoshino, Taghizadeh-Hesary, “Causes and Remedies for Japan’s Long-Lasting Recession: Lessons f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BI, 2015.12월